

야곱2

-열 번째 이야기-



65Page



66Page



67Page



68Page



69Page

나 레 이 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의 미움을 샀어요.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먼 길을 떠날 수 밖에 없었어요. 야곱은 굉장히 먼 곳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. 야곱은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어요.

나 레 이 셴 캄캄한 밤이 되자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.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. 꿈에서 긴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높이 닿았어요.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.

하 나 님 야곱아! 나는 하나님이다.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.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!

나 레 이 셴 꿈에서 깬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. 너무나 놀라운 꿈이었어요.

야 곱 하나님, 감사합니다!

나 레 이 셴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. 그리고 그 곳 이름을 벵엘이라고 하였어요.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 드렸어요.

나 레 이 셴 어느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어요.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.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했어요.

야 곱 외삼촌, 작은 딸 라헬을 제게 주신다면 제가 칠 년 동안 일을 하겠습니다.

나 레 이 셴 어느새 칠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.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칠 년이 짧게 느껴졌어요.

나 레 이 셴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어요.

야 곱 이제 칠 년이 되었으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세요.

나 레 이 셴 하지만 외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야곱과 결혼 시켰어요.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 없다고 말했어요. 그리하여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어요.



70Page



71Page

라 반 네가 나를 위해 다시 칠 년 동안 일한다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네.

나 레 이 션 야곱은 외삼촌의 말을 따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.

7년이 지난 후, 마침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 하게 되었어요.

나 레 이 션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여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. 삼촌의 집에 머무르면서 야곱은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. 많은 양과 소 그리고 낙타 등의 가축을 키웠지요.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어요.